

홈 > 뉴스 > 전국 > 전북

전주대 고전학연구소, 국역 '추안급국안' 90권 출판

조선후기 정치, 범죄사회사 자료... 당시 사회적 모순 적나라하게 묘사

2014년 09월 26일 (금) 16:04:22

김태권 기자 ✉ ktk2467@hanmail.net



▲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, 국역 '추안급국안' 90권 출판했다. 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(1601년)부터 고종 29년(1892년)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, 역모, 천주교,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, 심문한 기록이다.(사진제공=전주대학교)

(전주=국제뉴스) 김태권 기자 = 전주대학교(총장 이호인) 한국고전학연구소(소장 변주승)는 지난 2004년 처음 번역을 시작한 이후 10년만에 '추안급국안(推案及鞫案)'을 완역해 '국역 추안급국안' 90권을 간행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사업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(현 한국연구재단)에서 공모한 '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'의 지원 과제로 수행됐다.

'추안급국안(推案及鞫案)'은 선조 34년(1601년)부터 고종 29년(1892년)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, 역모, 천주교,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·심문한 기록이다.

심문 대상자는 신분상으로 양반에서 노비까지, 직역으로 관료와 상인 및 농민과 궁녀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,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 이를 통해 당대인들의 사회적 행동양식 및 사고방식을 복원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.

'추안급국안'은 '조선왕조실록' '승정원일기' '비변사등록' 등 다른 역사서에서 요약·압축된 사건이나 내용들을 심문과 진술 형태로 가감 없이 자세히 수록하고 있어 각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실체적 진실·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관계, 특히 베일에 싸여 있던 궁중 내부의 갈등은 조선 후기 역사적 사건의 속살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.

© 국제뉴스(<http://www.gukjenews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